

# 고등학생들의 추천도서목록 이용과 인식에 관한 연구\*

## High School Students' Understanding and Use of Recommended Books Lists

정진수 (Jin Soo Chung)\*\*

### 목 차

- |           |            |
|-----------|------------|
| 1. 서론     | 4. 연구 결과   |
| 2. 이론적 배경 | 5. 토론 및 결론 |
| 3. 연구방법   |            |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들의 추천도서목록 이용과 인식을 분석하는 것이다. 서울 시내 7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311명의 학생들의 유효한 응답을 분석하였다. 빈도분석, 이항로짓모형분석, 일원분산분석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추천도서목록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학년, 추천도서목록의 개별 적합성과 재미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났고, 특히 추천도서목록의 개별 적합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수록 추천도서목록을 이용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둘째,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추천도서목록 이용을 덜할 것이라는 결과를 나타냈고 사서교사, 교과교사, 독서교육단체 및 기관이 각각 제작한 목록, 입시에 활용된 목록의 이용 의향이 여학생들에 비해 모두 낮았다. 셋째, 독서를 잘 하지 않거나 즐기지 않는 학생들이 사서교사와 교과교사 제작 추천도서목록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서교사들의 인식과는 다르게, 독서를 즐기거나 독서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잘하는 학생들이 사서교사와 교과교사 제작 추천도서목록에 대해 오히려 긍정적인 이용 의향을 보였다. 넷째, 모든 유형의 추천도서목록 가운데 학생들은 입시에 활용된 추천도서목록에 가장 긍정적인 이용 의향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학생들이 추천도서목록을 포함한 다양한 도서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독서교육의 비계(scaffold)를 고민하는데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igh school students' understanding and use of the recommended books lists. The survey distributed to high school students in seven high schools located in Seoul, and 311 students responded. Using SPSS 24, the data was analyzed by frequency, binary logistic model, and one-way ANOVA. Results show the followings. First, the meaningful factors affecting students' use of recommended books lists are gender, grade levels, and the degree to which students think recommended books lists include the books that are suitable and interesting. Particularly, the degree to which students think recommended books lists include the suitable books for them is the strong factor affecting students' use of the recommended books lists. Second, male students are less likely to use recommended books lists than female students. Male students consistently are less likely to use the recommended books lists made by school librarians, subject teachers, and reading experts and/or organizations. Third, teacher-librarians believed that the recommended books lists would help students who do not enjoy reading and have difficulties in reading. However, the study finds that students who enjoy reading and read well are more willing to use the recommended books lists made by school librarians, subjects teachers, and reading experts and/or organizations than those who do not. Fourth, students are most willing to use the recommended books lists for college preparation. The findings suggest the further research topics in designing the recommended books lists suitable for high school students and in scaffolding the high school students' use of book information reflected in recommended books lists.

키워드: 고등학생, 추천도서목록, 권장도서목록, 북큐레이션, 추천도서, 권장도서, 학교도서관, 독서교육  
High School Students, Recommended Books, Reading Education

\* 본 논문은 2021년 덕성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덕성여자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 문헌정보학전공 교수(jschung@duksung.ac.kr / ISNI 0000 0004 6327 3049)  
논문접수일자: 2022년 6월 9일 최초심사일자: 2022년 6월 20일 게재확정일자: 2022년 6월 22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6(3): 5-26, 2022. <http://dx.doi.org/10.4275/KSLIS.2022.56.3.005>

© Copyright © 2022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추천도서목록이 생산된다. 전통적으로 추천도서목록을 생산 및 배포하는 주체로서 학생들의 교육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출판 및 독서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단체가 있다. 각각의 목록은 생산 주체에 따라 제작의 목적, 추천 도서선정의 기준, 권수, 목록 제공 형식 등이 모두 다르다. 또한, 요즘은 추천도서목록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도서들의 모음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사서교사와 교과교사들이 개별 학교의 교육과정과 독서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추천도서를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안내하며, 사서교사는 도서 추천을 전제로 하는 북 큐레이션 서비스를 운영하며 주제별, 테마별 등 구분에 따른 추천도서목록을 안내한다.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한동안 추천도서목록 생산과 활용은 학계와 현장의 토론 주제였다. 추천도서목록 활용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 이유는 첫째, 본질적으로 추천도서목록은 제작시 생산 주체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생산 주체의 기준과 선택에 따라 '좋은' 책들을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싶은 책들을 목록에 올린다는 문제였다(김근호, 2011; 강창래, 2012). 추천도서목록을 제작하는 단체가 학생들에게 독서를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자 좋은 책을 선정하고 소개하는 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목록의 생산 주체로부터 한번 걸러질 수밖에 없

고, 목록의 생산 주체가 좋은 책의 기준에 대해 아무리 심사숙고하여 책을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목록 이용자인 학생들이 아니라 생산 주체가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선정하여 제작한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지적되었다.

둘째, 고등학생들의 추천도서목록 의존에 대한 우려가 있다(강창래, 2012). 도서관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독자 상이 스스로 읽을 책을 선택하는 독립적인 독자라는 관점에서 고등학생들의 추천도서목록 이용이 추천도서목록이라는 여과지에서 배제된 수 많은 책들에 대한 접근 기회의 상실을 야기한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내하는 추천도서목록에만 의존하여 그 범위를 넘어선 도서들에 대해 접근을 하지 않는다면 추천도서목록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책을 읽을 기회를 잃을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수용적 교육이 중심이 되는 국내 학교 교육 방식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의 정보환경은 복잡하고 역동적이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필요한 도서 정보를 선별하여 전달하고 학생들이 전달된 정보만을 이용하는 단순한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또한, 개별 학생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도서 정보를 제대로 잘 찾아 이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가진다. 2021년 12월에 발표된 국민독서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1) 결과에 의하면 고등학생들이 독서를 위해 학교에 가장 많이 바라는 것이 "좋은 책 소개, 정보 제공"(210)이었다. 고등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추천도서목록은 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좋은 책을 소개'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동시에 많은 학생들이 좋은 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추천도서목록을 제작하거나 안내하는 사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좋은 책에 대한 정보를 마음껏 접근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다양한 추천도서목록 정보를 접하면서 이를 평가하고 스스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것이 결국 학교 도서관을 통해 사서교사가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정보활용교육이다.

추천도서목록 연구자들은 좋은 책 정보를 원하는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다양한 정보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적 환경과 프로그램 설계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추천도서목록에 관한 주요 선행 연구는 공적 영역에서의 추천도서목록의 개발과 개별 현장에서 활용 방법에 무게중심이 있었다. 이제는 정보기술이 빠르게 발전하여 수많은 도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함에 따라 학생들이 다양한 추천도서목록을 비판적으로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 시작은 추천도서목록의 수요자인 학생들을 이해하는 연구일 것이다.

## 1.2 연구 목적

고등학생들은 특히 인지발달단계 상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연령대에 속하여 초·중학생에 비하여 다양한 추천도서목록 이용에 대한 독립적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의 다양한 추천도서목록 이용과 인식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추천도서목록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확인과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분석이다. 둘째, 추천도서목록 이용

의향이 고등학생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학년과 성별, 독서 동기, 독서 생활습관, 그리고 독서능력에 대한 자기인식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 2. 이론적 배경

### 2.1 추천도서

추천도서는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단계에 알맞고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합하거나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도서”라고 정의된다(변우열, 2015, 322). 이와 유사한 용어로 권장도서가 있으며 권장도서는 “읽기를 권하여 장려하는 책”(변우열, 2015, 323)으로 정의되어,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엄격한 선정기준에 의해 양서라고 판단되어 장려”(안인자, 2009, 34)하며 “좋은 책을 소개하며 안내하는 역할”(이연옥, 2006, 20)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일상적 환경에서는 권장도서와 추천도서는 유사한 의미로 혼용되어 사용된다. 권장도서라는 용어를 이용하는 관점에서는 권장도서가 필독도서는 아니라는 의미가 강조된다. 그렇지만, 추천도서라는 용어가 필독이라는 의미를 포함하지 않으며 생산 주체의 추천이라는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추천도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2.2 추천도서목록 개발

고등학생들을 포함하는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추천도서목록에 관한 선행연구들

은 크게 추천도서목록 개발 방안과 추천도서목록의 활용방안에 관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도서관의 장서개발 관점에서 추천도서목록을 평가하고 향후 개발 방안을 제시한 이연옥(2006)은 문화관광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도서관협회, 어린이도서연구회,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 모임(이하 책따세), 전교조 학교도서관분과, 부산시교육청 등의 목록을 검토하여 평가하고 개발방안으로 구체적으로 첫째,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고 요구를 반영해야 하며, 둘째, 어린이와 청소년의 상황과 수준에 적합한 세분화된 목록개발이 필요하며, 셋째, 서지정보와 서평이 포함되어야 하며, 넷째, 선정과정의 체계화와 성문화, 다섯째, 목록의 개발 주체 다양화와 사서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안인자(2009)는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6개의 정부기관과 경기도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를 비롯한 11개 사회단체에서 개발 및 배포되는 어린이 추천도서 목록들을 정보원의 관점에서 검토하였고 목록들이 통합검색이 안되어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고등학생들을 포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되는 추천도서목록의 근본적인 지향점에 대해 지적한 김근호(2011)는 공적인 영역에서 추천도서목록의 생산주체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청소년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추천도서목록을 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책따세 등 대표적인 주요 추천도서목록을 생산하는 단체들이 모두 제대로 청소년상에 대한 정립 없이 목록을 생산한다는 비판을 하며, 구체적으로 “나쁜 책으로부터 보

호해야 하는 대상이자 윤리적으로 계도해야 하는 대상으로 청소년을 인식하고 있거나, 혹은 뚜렷한 청소년상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경험적 지표들이 산술적으로 종합”(p.297)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상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2.3 추천도서목록 활용

최근 연구들은 추천도서목록의 개발과 평가보다는 추천도서목록의 활용에 대해 더욱 관심을 둔다. 소병문(2019)은 고등학교 권장도서목록을 활용하여 자기선택적 독서프로그램을 설계 운영하여 학생들의 독서동기유형을 파악하였고 자기선택적 독서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율적 독서동기를 가지고 독서를 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윤유라와 이은주(2020)는 대학생들의 교양독서를 위한 권장도서목록 기술서지정보의 풍부함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와 제안하였다. 이윤석(2021)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출판문화협회, 책따세가 발간한 추천도서목록에 실린 도서들의 선정 기준을 알아보고 서지정보의 기술에 있어 특징을 살펴보고 분석하여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서지적 특징에 따른 도서추천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특히 요즘에 학교도서관이 관심을 두는 추천도서목록의 제공 방식은 ‘북큐레이션’ 서비스이다. 추천도서목록 배포를 넘어서서 추천된 도서의 전시 개념까지 포함한 북큐레이션은 도서관이 주체가 되어 도서관 내 특정 주제나 테마에 따라 선정된 소수의 책들을 모아서 전시하거나

별치하는 서비스(김미정 외, 2021)이다. 따라서 도서관 북큐레이션 서비스를 위해 선정한 도서들은 하나의 추천도서목록이 된다. 김미정 외(2021)는 사서교사가 중요하게 인식하는 북큐레이션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밝히는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정보서비스와 전문성 신장 등의 순서로 우선순위가 있음을 밝혔고 학교도서관의 이용자인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독자 참여형 북큐레이션 등을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박양하(2016)는 학교도서관의 북큐레이션 서비스를 위해 기존의 추천도서목록을 분석하여 12개의 도서 추천 기준을 도출하였다.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중고등학생 대상 설문에서 관심 키워드 중심 추천, 학년단위 다대출, 교과연계 도서목록의 다대출 등이 상위 기준으로 도출되어 학생들의 선호 기준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고등학생들의 교과별 수행평가 도서목록에 대한 인식과 관심수준을 살펴본 박시윤과 노동조(2018)는 중고등학생들이 성별과 학교급별에 따라 교과별 수행평가 도서목록의 관심수준에 차이가 있고, 도서목록에 대해 관심있는 학생이 수행평가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며, 셋째, 도서목록에 대한 인식 수준과 지식습득 및 학업성취도는 관련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3. 연구방법

#### 3.1 데이터수집과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설문조사방법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사서교사가 배치된 서울 지역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서로 다른 구에 위치한 7개의 고등학교에서 참여의사를 밝혀 주고 각 학교의 사서교사가 설문지 배포에 협조해주어 총 311명의 학생들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설문지 배포는 반 단위 또는 동아리 단위로 이루어졌다. 추가적으로 참여 학생들이 소속된 학교의 추천도서목록 제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7개교의 사서교사들을 대상으로 서술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7개교 사서교사로부터 모두 응답을 받았다.

설문지는 네이버 폼으로 제작되어 링크와 QR코드가 학교에 제공되었으며 학생들은 자신의 휴대용 기기를 이용하여 응답하였다. 온라인 설문시에는 각 응답자가 모든 문항을 필수 응답하도록 설정하여 모든 문항의 응답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응답한 311명의 설문지가 모두 유효하였다. 설문조사는 2022년 5월 2일부터 5월 27일까지 진행되었다.

#### 3.2 설문지 문항

학생들 대상 설문지 문항은 모두 5개의 구분으로 나누어 <표 1>과 같이 설계되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나이, 성별, 소속 학교를 적도록 했고, 독서생활로 구분되는 5개의 문항은 최근 2주간 독서한 책, 독서능력에 대한 인식, 독서습관, 독서 동기, 도서선택 방식을 물었다. 이어서 추천도서목록 이용 여부, 이용과 비이용의 이유를 물었고, 추천도서목록에 대한 관심도, 신뢰도, 선호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표기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생산주체에 따른 선호도와 입시활동 목록에 대한 선호도를 또한 5점 리커트 척도로 표기하도록 요청했다.

〈표 1〉 설문지 문항 구성

	문항 구분	구성 내용	문항 수
I	학교/학년/성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3
II	독서생활	최근 독서, 독서능력 인식, 독서생활 습관, 독서 동기, 독서할 도서 선택 방식	5
III	추천도서목록 이용	추천도서목록 이용여부, 이용과 비이용의 이유	2
IV	추천도서목록 인식	추천도서목록에 대한 관심도, 신뢰도, 및 선호도	3
V	추천도서목록 이용의향	생산 주체에 따른 목록의 이용의향, 입시 활용을 위한 목록 이용의향	7
전체 문항 수			20

### 3.3 데이터 분석

기술통계량을 나타내는 빈도분석이 전 문항 응답의 결과분석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이 모든 통계분석은 SPSS 24버전을 이용했다. 본 연구는 추천도서목록 이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추천도서목록 이용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구성하였다. 추천도서목록 이용 여부는 이산형 변수에 해당하며, 이를 종속변수로 활용하기 위해 이항로짓모형(binary logistic model)을 이용하였다. 이항로짓모형은 선택모형(choice model) 중 하나로 종속변수에 대한 선택 확률을 도출하여 이를 로지스틱 분포에 적용함으로써 통계적 검정을 진행하는 모형이다(Hosmer & Lemeshow, 2000). 구체적 수식은 아래와 같으며, 각 계수값( $\beta_n$ )은 해당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으로 해석한다.

$$f(x) = \beta_0 + \beta_1 x,$$

$$\pi(x) = E(y|x) = \frac{\exp(f(x))}{1 + \exp(f(x))},$$

$$g(\pi(x)) = \ln\left[\frac{\pi(x)}{1 - \pi(x)}\right] = f(x)$$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은 생산

주체별 추천도서목록에 대한 이용 의향이 학생의 학년, 성별, 독서동기, 독서 생활습관, 독서 능력에 대한 자기인식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이 외 기술통계량을 나타내는 빈도분석이 전 문항응답의 결과 분석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이 모든 통계분석은 SPSS 24버전을 이용했다.

## 4. 연구 결과

### 4.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체 학생 수는 311명이며, B고에서 8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고등학교 1학년이 195명 참여하여 2학년보다 참여 비율이 높았다. 또한, 성별에 따라 남학생(42.4%)보다 여학생(57.6%)이 더 많이 참여하였다. 이상의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2〉로 정리된다.

### 4.2 추천도서목록 제공 현황

연구에 참여한 7개교 사서교사들을 대상으로 각 학교의 추천도서목록 제공 현황에 대해

〈표 2〉 응답학생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학교	A여고	9	2.9
	B고	80	25.7
	C고	70	22.5
	D고	28	9.0
	E고	28	9.0
	F고	62	19.9
	E여고	34	10.9
학년	1학년	195	62.7
	2학년	116	37.3
성별	여학생	179	57.6
	남학생	132	42.4
합계		311	100.0

여 응답하였다. 학교별 추천도서목록 제공 현황은 보면, 공통적으로 7개교 모두 북큐레이션 서비스를 진행하며 주제별 또는 테마별 추천도서를 안내한다고 응답했다. 7개교 중 3개교 사서교사는 추천도서목록을 직접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3개교 사서교사는 현재 직접 제작하지 않지만 교내 교과 교사들이 과목에 따라 개별적으로 또는 사서교사와 협업하여 교과 수업을 위한 추천도서목록을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안내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연구에 참여한 7개교에서는 모두 학생들이 사서교사, 교과교사, 또는 사서교사와 교과교사 협업으로 제작하는 추천도서목록을 이용한다. 더하여 7개교 중 2개교는 외부 기관과 단체에서 제작한 추천도서목록을 학생들에게 안내한다. 물꼬방 추천도서목록, 책따세 추천도서목록, 한국과학창의재단 추천도서목록, 대학의 학과별 추천도서목록, 대한출판문화협회 올해의 청소년 도서, 창비 MBTI별 추천도서가 그것이다.

#### 4.3 고등학생들의 추천도서목록 인식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들의 추천도서목록 이용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17개의 문항을 제시하였으며, 응답에 대한 빈도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중 독서 동기, 최근 독서, 독서 생활습관, 독서능력에 대한 자기인식의 4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독서 동기에 대해 '독서를 하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145명, '숙제와 학생부 기록 등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166명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독서에 대한 자신의 흥미보다 숙제나 학생부 기록 등 진학 목적이 우세함을 알 수 있다. 최근 2주간 읽었던 책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무려 86.2%인 268명의 학생이 '소설 및 문학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읽지 않았다는 응답도 7.1%(22명)에 달했다. 고등학생들의 독서 생활습관에 대해, 응답자 중 과반이 넘는 170명(54.7%)의 학생이 '독서를 즐기기는 하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표 3〉 고등학생들의 독서 생활과 독서능력에 대한 자기인식

문항	응답	빈도(명)	비율(%)
독서 동기	숙제와 학생부 기록 등을 위해서	166	53.4
	독서가 하고 싶어서	145	46.6
	합계	311	100.0
최근 2주간 읽은 책	읽지 않음	22	7.1
	소설 및 문학책	268	86.2
	비문학 책	2	0.6
	기타	19	6.1
	합계	311	100.0
독서생활 습관	독서를 매우 즐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독서를 한다.	22	7.1
	독서를 즐기기는 하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하지 않는다.	170	54.7
	시간이 나면 다른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독서를 하지 않는다.	70	22.5
	시간이 나도 독서를 잘 하지 않는다.	49	15.8
	합계	311	100.0
독서능력에 대한 자기인식	독서를 어려움 없이 매우 잘한다.	60	19.3
	독서를 어려움 없이 대체로 잘하는 편이다.	214	68.8
	독서가 잘 안되어 대체로 어렵게 느껴지는 편이다.	29	9.3
	독서가 잘 안되어 매우 어렵다.	8	2.6
	합계	311	100.0

‘시간이 날 때마다 독서를 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22명(7.1%)으로 파악되어 독서가 생활화된 학생은 매우 적었다. 응답자들 중 독서가 어렵다고 응답한 학생은 37명(11.9%)이며 그 외 274명(88%) 학생들은 자신의 독서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학생이 책을 고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최대 2개까지 선택을 하도록 한 문항의 응답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전체 응답 중 165건으로 31.8%가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도서 선택’이었다. 그 뒤를 이어 ‘베스트셀러를 선택’하는 응답이 89건으로 17.2%, ‘추천도서목록’을 선택하는 학생이 83건(16%)으로 집계되었다. 이로부터 학생이 책을 고를 때 본인의 흥미에 맞는 책을 우선으로 선택하며, 보조적 방법으로서 베스트셀러 선정이나 추천도

서목록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추천도서목록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는 〈표 5〉에서 제시하듯이 167명(53.7%)의 학생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용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23명의 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천도서목록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16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추천도서목록 이용 이유를 조사하였으며, 79명(47.3%)의 학생이 ‘추천도서목록에 포함된 책이 좋은 책일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추천도서목록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뒤를 이어, 52명(31.1%)의 학생이 ‘독서할 책을 스스로 찾는 것보다 목록을 보고 빨리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추천도서목록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천도서목록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144명을 대상으로 추천도서목록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역시 〈표 5〉에 제시되었



〈표 4〉 책을 고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최대 2개 중복응답 허용)

구분	빈도(건수)	비율(%)	순위
추천도서목록 선택	83	16.0	3
베스트셀러 선택	89	17.2	2
최다 대출도서 선택	9	1.7	6
친구의 추천도서 선택	60	11.6	4
주변 어른(선생님 또는 부모님)의 추천도서 선택	53	10.2	5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	165	31.8	1
SNS 및 인터넷 커뮤니티 추천도서 선택	60	11.6	4
합계	519	100.0	

〈표 5〉 추천도서목록 이용 경험과 이용 및 비이용 이유

	문항	빈도(명)	비율(%)
추천도서목록 이용 경험 여부	추천도서목록 이용 경험 있음	167	53.7
	추천도서목록 이용 경험 없음	144	46.3
	합계	311	100.0
추천도서목록 이용 이유	독서할 책을 스스로 찾는 것보다 목록을 보고 빨리 고를 수 있기 때문에	52	31.1
	추천도서목록에 포함된 책은 좋은 책일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79	47.3
	주변에서 추천도서목록을 이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17	10.2
	기타	19	11.4
	합계	167	100.0
추천도서목록 비이용 이유	추천도서목록을 따로 클릭하거나 검색하여 이용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13	9.0
	추천도서목록 자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40	27.8
	추천도서목록에 포함된 책들은 읽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에	22	15.3
	나는 독서할 책을 스스로 자유롭게 고르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낌	69	47.9
	합계	144	100.0

다. 69명(47.9%)의 학생이 ‘독서할 책을 스스로 자유롭게 고르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낌’이라 응답하였고 40명(27.8%)의 학생이 ‘추천도서목록 자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하였다.

고등학생들의 추천도서목록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표 6〉에 제시되었다. 추천도서목록에

자신에게 맞는 책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는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학생이 159명(51.2%)으로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리커트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평균 3.48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통’의 기댓값이 3점이라는 점에서 추천도서목록이 자신에게 맞는 책을 포함하고 있다는 믿음에 대해 ‘보통’ 이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추천도

〈표 6〉 추천도서목록에 대한 인식

	문항	빈도(명)	비율(%)	평균	표준편차
추천도서목록에 자신에게 맞는 책이 포함되는가에 대한 믿음	전혀 그렇다고 믿지 않는다	7	2.3	3.48	0.90
	대체로 그렇다고 믿지 않는 편이다	31	10.0		
	보통이다	114	36.7		
	대체로 그렇다고 믿는 편이다	124	39.9		
	매우 그렇다고 믿는다	35	11.3		
	합계	311	100.0		
추천도서목록에 재미있는 책이 포함되어 있는가에 대한 믿음	전혀 그렇다고 믿지 않는다	19	6.1	3.45	1.03
	대체로 그렇다고 믿지 않는 편이다	28	9.0		
	보통이다	100	32.2		
	대체로 그렇다고 믿는 편이다	122	39.2		
	매우 그렇다고 믿는다	42	13.5		
	합계	311	100.0		
추천도서목록에 좋은 책이 포함되어 있는가에 대한 믿음	전혀 그렇다고 믿지 않는다	3	1.0	4.14	0.85
	대체로 그렇다고 믿지 않는 편이다	7	2.3		
	보통이다	55	17.7		
	대체로 그렇다고 믿는 편이다	126	40.5		
	매우 그렇다고 믿는다	120	38.6		
	합계	311	100.0		

서목록에 재미있는 책이 포함되는지 조사한 결과, 긍정적으로 응답한 학생이 164명(52.7%)으로 집계되었고, 평균 역시 3.45점으로 나타나 학생들은 '보통' 이상으로 추천도서목록에 재미있는 책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고 있다는 해석 가능하다. 추천도서목록에 좋은 책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는지에 대한 조사한 결과, 긍정적으로 응답한 학생이 246명(79.1%)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평균도 4.14점으로 높게 나타났다으며,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추천도서목록에 포함된 책을 좋은 책이라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향후에도 추천도서목록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표 7〉에서 제시하듯이 응답 학생들의 과반이 넘는 194명(62.4%)의 학생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사서교사가 제작한 추

천도서목록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과반이 넘는 202명(65.0%)의 학생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평균도 3.77점으로 나타나 '보통'의 기댓값보다 0.77점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과 교사가 제작한 추천도서목록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214명(68.8%)의 학생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평균도 3.92점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동료학생이 제작한 추천도서목록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166명(53.4%)의 학생이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으며, 평균은 3.54점으로 나타났다. 평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동료학생이 제작한 추천도서목록보다 사서교사나 교과교사가 제작한 추천도서목록의 이용 의향이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부모가 제작한 추천도서목록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긍정적으로 응답한

〈표 7〉 향후 추천도서목록 이용 의향

	문항	빈도(명)	비율(%)	평균	표준편차
향후 추천도서목록 이용 의향	전혀 이용하고 싶지 않다	12	3.9	3.68	1.01
	별로 이용하고 싶지 않다	23	7.4		
	보통이다	82	26.4		
	이용하고 싶다	128	41.2		
	매우 이용하고 싶다	66	21.2		
	합계	311	100.0		
사서교사 제작 추천도서목록 이용 의향	전혀 이용하고 싶지 않다	9	2.9	3.77	0.97
	별로 이용하고 싶지 않다	18	5.8		
	보통이다	82	26.4		
	이용하고 싶다	128	41.2		
	매우 이용하고 싶다	74	23.8		
	합계	311	100.0		
교과교사 제작 추천도서목록 이용 의향	전혀 이용하고 싶지 않다	8	2.6	3.92	1.05
	별로 이용하고 싶지 않다	23	7.4		
	보통이다	66	21.2		
	이용하고 싶다	103	33.1		
	매우 이용하고 싶다	111	35.7		
	합계	311	100.0		
동료학생들 제작 추천도서목록 이용 의향	전혀 이용하고 싶지 않다	12	3.9	3.54	1.02
	별로 이용하고 싶지 않다	29	9.3		
	보통이다	104	33.4		
	이용하고 싶다	110	35.4		
	매우 이용하고 싶다	56	18.0		
	합계	311	100.0		
학부모 제작 추천도서목록 이용 의향	전혀 이용하고 싶지 않다	36	11.6	3.02	1.11
	별로 이용하고 싶지 않다	51	16.4		
	보통이다	123	39.5		
	이용하고 싶다	73	23.5		
	매우 이용하고 싶다	28	9.0		
	합계	311	100.0		
독서교육단체 및 기관 제작 추천도서목록 이용 의향	전혀 이용하고 싶지 않다	11	3.5	3.63	1.03
	별로 이용하고 싶지 않다	30	9.6		
	보통이다	86	27.7		
	이용하고 싶다	119	38.3		
	매우 이용하고 싶다	65	20.9		
	합계	311	100.0		
대학 입시에 활용되었던 추천도서목록 이용 의향	전혀 이용하고 싶지 않다	6	1.9	4.17	0.95
	별로 이용하고 싶지 않다	12	3.9		
	보통이다	46	14.8		
	이용하고 싶다	105	33.8		
	매우 이용하고 싶다	142	45.7		
	합계	311	100.0		

학생은 101명(32.5%)으로 나타나 생산 주체 중 가장 이용 의향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평균은 3.02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학부모가 제작한 추천도서목록에 대한 이용 의향이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석 가능하다. 독서교육 단체 및 기관에서 제작한 추천도서목록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에서 184명(59.2%)의 학생이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평균으로 나타내면 3.63점으로 보통이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입시에 활용되었던 추천도서목록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247명(79.5%)의 학생이 이용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평균은 4.17점으로, 전체 생산주체별 추천도서목록 이용 의향 중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다. 특히, 학생의 독서 동기가 숙제 및 학생부 기록 등 진학 목적이 우세하다는 점으로부터 대학입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추천도서목록에 대한 이용 의향이 가장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 4.4 추천도서목록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 추천도서목록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추천도서목록 이용 경험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이항로짓모형을 구성하였다. 독립변수는 학생의 학년과 성별, 독서동기, 독서 생활습관, 독서능력 인식, 추천도서목록에 대한 인식 세 개를 포함하여 8개로 설정하였다.

이항로짓모형의 분석결과는 P값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고, 유의성이 만족된 변수를 중심으로 계수의 부호와 오즈비(EXP(b)) 값을 토대로 해석한다. <표 8>이 제시하듯이, 추천도서목록 이용에 학년은 5% 수준에서, 성별, 독서 생활습관, 추천도서목록이 재미있는 책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10% 수준에서, 내게 맞는 책 포함하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8> 추천도서목록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계수	EXP(b)	표준오차	Wald 통계량	P	Cox & Snell R <sup>2</sup>
상수항	-3.202	0.041	1.274	6.315	0.012**	0.214
학년(1: 학년, 2: 2학년)	0.539	1.714	0.271	3.968	0.046**	
성별(1: 여학생, 2: 남학생)	-0.500	0.607	0.267	3.514	0.061*	
독서동기(1: 숙제와 학생부 기록을 위해, 2: 독서가 하고 싶기 때문에)	-0.410	0.664	0.292	1.974	0.160	
독서 생활습관(리커트 척도)	-0.306	0.737	0.179	2.914	0.088*	
독서능력 인식(리커트 척도)	0.031	1.031	0.233	0.017	0.895	
추천도서목록은 내게 맞는 책을 포함하는가(리커트 척도)	0.835	2.305	0.202	17.099	0.000***	
추천도서목록은 재미있는 책을 포함하는가(리커트 척도)	0.277	1.320	0.155	3.199	0.074*	
추천도서목록은 좋은 책을 포함하는가(리커트 척도)	0.187	1.205	0.182	1.058	0.304	

Note: \*\*\*: 1%, \*\*: 5%, \*: 10% 수준에서 유의

통계적 유의성을 만족한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1학년 학생보다 2학년 학생이 추천도서목록을 1.714배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의 계수가 음(-)의 값을 보였기 때문에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추천도서목록을 0.607배 덜 이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독서생활 습관의 계수값은 -0.306으로 나타났으나, 해당 문항이 '1: 시간이 날 때마다 독서를 매우 즐겁' ~ '5: 시간이 나도 독서를 하지 않음' 등 역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독서를 1단위 더 즐기지 않을수록 추천도서목록을 0.737배 덜 이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학생이 독서를 1점 단위(리커트척도 기준) 더 즐길수록 추천도서목록을 0.737배 더 이용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학생이 추천도서목록에 재미있는 책이 포함된다고 믿을수록 추천도서목록을 1.32배 더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추천도서목록이 내게 맞는 책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학생의 인식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수치가 높아질수록 긍정적인 답변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계수는 양(+)의 값을 보였으며, 오즈비는 1.265로 나타났기 때문에 추천도서목록이 내게 맞는 책이 포함하는지에 대해 학생이 1점 단위(리커트척도 기준) 더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추천도서목록을 2.305배 더 이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모형 설명력은 결정계수( $R^2$ )로 파악 가능하며, 21.4%로 나타났다.

#### 4.5 추천도서목록 이용 의향 분석

생산 주체별 추천도서목록 이용 의향이 학생의 학년이나 성별, 독서동기, 독서 생활습관, 독

서능력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서교사 제작 추천도서목록 이용 의향은 성별과 독서 생활습관에 있어 1% 수준, '독서능력에 대한 자기 인식'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9〉 참조). 즉, 성별에 따라 남학생(3.52점)보다 여학생(3.96점)이 사서교사가 제작한 추천도서목록을 이용할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독서 생활습관에 따라서 독서를 즐기는 학생이 독서를 하지 않는 학생보다 사서교사가 제작한 추천도서목록을 이용할 의향이 더 높았다. 또한, 독서를 어려움 없이 잘하는 학생들보다 독서를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의 사서교사 제작 추천도서목록 이용 의향이 더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독서가 매우 어렵다고 답한 학생의 평균은 2.75점으로 전체 집단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추천도서목록 이용 의향은 학생의 독서능력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에 참여한 7개교 사서교사들 중 3명은 "독서경험이 많지 않은 학생들,"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막막한 학생들", "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적합한 책을 찾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추천도서목록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지만 본 분석은 독서를 즐기는 학생들이 추천도서목록 이용 의향이 높고 독서를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의 이용 의향이 낮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흥미롭다.

교과 교사가 제작한 추천도서목록 이용 의향에 대한 집단별 평균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 독서 생활습관, 독서능력 인식이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10〉 참조). 사서교사가 제작한 추천도서목록 이용 의향과 마찬가지로

〈표 9〉 사서교사 제작 추천도서목록 이용 의향 차이 분석

		평균	표준편차	F 통계량	P
학년	1학년	3.76	0.99	0.032	0.858
	2학년	3.78	0.95		
성별	여학생	3.96	0.84	16.797	0.000***
	남학생	3.52	1.07		
독서동기	숙제와 학생부 기록을 위해	3.76	0.95	0.060	0.806
	독서가 하고 싶어서	3.79	0.99		
독서 생활습관	독서를 매우 즐겨 시간이 날 때마다 독서를 한다.	3.59	1.22	6.222	0.000***
	독서를 즐기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하지 않는다.	3.98	0.88		
	시간이 나면 다른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독서를 하지 않는다.	3.50	0.96		
	시간이 나도 독서를 잘 하지 않는다.	3.51	1.02		
독서능력 자기인식	독서를 어려움 없이 매우 잘한다.	3.78	0.99	3.358	0.019**
	독서를 어려움 없이 대체로 잘하는 편이다.	3.82	0.92		
	독서가 잘 안되어 대체로 어렵게 느껴지는 편이다.	3.66	0.97		
	독서가 잘 안되어 매우 어렵다.	2.75	1.58		

Note: \*\*\*: 1%, \*\*: 5%, \*: 10% 수준에서 유의

〈표 10〉 교과 교사 제작 추천도서목록 이용 의향 차이 분석

		평균	표준편차	F 통계량	P
학년	1학년	3.91	1.04	0.068	0.795
	2학년	3.94	1.06		
성별	여학생	4.11	0.95	13.981	0.000***
	남학생	3.67	1.12		
독서동기	숙제와 학생부 기록을 위해	3.91	1.01	0.032	0.857
	독서가 하고 싶어서	3.93	1.08		
독서 생활습관	독서를 매우 즐겨 시간이 날 때마다 독서를 한다.	3.86	1.32	10.380	0.000***
	독서를 즐기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하지 않는다.	4.19	0.89		
	시간이 나면 다른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독서를 하지 않는다.	3.61	1.16		
	시간이 나도 독서를 잘 하지 않는다.	3.43	0.98		
독서능력 자기인식	독서를 어려움 없이 매우 잘한다.	4.03	1.13	4.372	0.005***
	독서를 어려움 없이 대체로 잘하는 편이다.	3.98	0.97		
	독서가 잘 안되어 대체로 어렵게 느껴지는 편이다.	3.48	1.12		
	독서가 잘 안되어 매우 어렵다.	3.00	1.31		

Note: \*\*\*: 1%, \*\*: 5%, \*: 10% 수준에서 유의

지로 남학생(3.67점)보다 여학생(4.11점)이 높았으며, 독서를 즐기는 학생의 이용 의향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서 능력에 대한 자기인식이 높을

수록 교과 교사 제작 추천도서목록 이용 의향이 또한 높아지는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료 학생이 제작한 추천도서목록 이용 의향

에 대한 집단별 평균 차이를 검정한 결과, 독서 생활습관만이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앞의 결과와는 다르게 독서를 매우 즐기며, 시간 날 때마다 독서를 하는 학생의 평균이 3.09점으로 가장 이용 의향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11〉 참조). 이는 독서를 즐기고, 독서빈도가 높은 학생은 사서교사와 과목별 교사가 제작한 추천도서목록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 의향을 보이나, 동료학생이 제작한 추천도서목록에 대한 이용 의향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학부모가 제작한 추천도서목록 이용 의향에 대한 집단별 평균 차이를 검정한 결과, 독서 생활습관만이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12〉 참조). 그런데 독서 생활습관의 평균은 2.67~3.16점으로 나타나 다른 생산주체의 추천도서목록 이용 의향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추천도서목록 이용 의향은 5점 척도

로 측정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용 의향이 '보통' 이하라고 판단된다.

독서교육단체 및 기관이 제작한 추천도서목록 이용 의향에 대해 집단별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과 독서동기가 5% 수준, 독서 생활습관이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13〉 참조). 다른 생산 주체가 제작한 추천도서목록 이용 의향과 마찬가지로 남학생(3.48점)보다 여학생(3.74점)의 이용 의향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독서를 즐기는 학생이 독서를 하지 않는 학생보다 높은 이용 의향을 보였다. 독서동기에 따라 숙제와 학생부 기록을 위해 독서를 하는 학생(3.52점)보다 순수하게 독서를 원하는 학생(3.77점)의 이용 의향이 더 높을 보였다.

입시에 활용되었던 추천도서목록 이용 의향에 대해 집단별 평균 차이를 검정한 결과, 성별과 독서 생활습관만이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표 11〉 동료학생 제작 추천도서목록 이용 의향 차이 분석

		평균	표준편차	F 통계량	P
학년	1학년	3.58	1.03	0.862	0.354
	2학년	3.47	0.99		
성별	여학생	3.62	0.95	2.421	0.121
	남학생	3.44	1.09		
독서동기	숙제와 학생부 기록을 위해	3.54	0.98	0.001	0.982
	독서가 하고 싶어서	3.54	1.05		
독서 생활습관	독서를 매우 즐겨 시간이 날 때마다 독서를 한다.	3.09	1.31	3.762	0.011**
	독서를 즐기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하지 않는다.	3.68	1.01		
	시간이 나면 다른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독서를 하지 않는다.	3.56	0.86		
독서능력 자기인식	시간이 나도 독서를 잘 하지 않는다.	3.27	1.00	1.758	0.155
	독서를 어려움 없이 매우 잘한다.	3.58	1.17		
	독서를 어려움 없이 대체로 잘하는 편이다.	3.57	0.95		
	독서가 잘 안되어 대체로 어렵게 느껴지는 편이다.	3.48	0.91		
	독서가 잘 안되어 매우 어렵다.	2.75	1.58		

Note: \*\*\*: 1%, \*\*: 5%, \*: 10% 수준에서 유의

〈표 12〉 학부모가 제작한 추천도서목록 이용 의향 차이 분석

		평균	표준편차	F 통계량	P
학년	1학년	3.03	1.14	0.056	0.813
	2학년	3.00	1.06		
성별	여학생	3.03	1.05	0.069	0.792
	남학생	3.00	1.19		
독서동기	숙제와 학생부 기록을 위해	2.98	1.03	0.405	0.525
	독서가 하고 싶어서	3.06	1.19		
독서 생활습관	독서를 매우 즐겨 시간이 날 때마다 독서를 한다.	2.95	1.33	2.673	0.047**
	독서를 즐기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하지 않는다.	3.16	1.08		
	시간이 나면 다른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독서를 하지 않는다.	2.94	1.08		
	시간이 나도 독서를 잘 하지 않는다.	2.67	1.07		
독서능력 자기인식	독서를 어려움 없이 매우 잘한다.	3.22	1.24	1.638	0.181
	독서를 어려움 없이 대체로 잘하는 편이다.	3.01	1.05		
	독서가 잘 안되어 대체로 어렵게 느껴지는 편이다.	2.79	1.11		
	독서가 잘 안되어 매우 어렵다.	2.50	1.31		

Note: \*\*\*: 1%, \*\*: 5%, \*: 10% 수준에서 유의

〈표 13〉 독서교육단체 및 기관이 제작한 추천도서목록 이용 의향 차이 분석

		평균	표준편차	F 통계량	P
학년	1학년	3.62	1.03	0.082	0.774
	2학년	3.66	1.03		
성별	여학생	3.74	0.96	4.842	0.029**
	남학생	3.48	1.10		
독서동기	숙제와 학생부 기록을 위해	3.52	1.04	4.527	0.034**
	독서가 하고 싶어서	3.77	1.01		
독서 생활습관	독서를 매우 즐겨 시간이 날 때마다 독서를 한다.	3.73	1.20	7.526	0.000***
	독서를 즐기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하지 않는다.	3.84	0.95		
	시간이 나면 다른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독서를 하지 않는다.	3.49	0.94		
	시간이 나도 독서를 잘 하지 않는다.	3.10	1.14		
독서능력 자기인식	독서를 어려움 없이 매우 잘한다.	3.65	1.10	1.627	0.183
	독서를 어려움 없이 대체로 잘하는 편이다.	3.68	0.98		
	독서가 잘 안되어 대체로 어렵게 느껴지는 편이다.	3.41	1.12		
	독서가 잘 안되어 매우 어렵다.	3.00	1.31		

Note: \*\*\*: 1%, \*\*: 5%, \*: 10% 수준에서 유의

유의하였다(〈표 14〉 참조). 성별에 따라 남학생 (3.97점)보다 여학생(4.32점)의 이용 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서를 즐기는 학생이 독서를 하지 않는 학생보다 더 높은 이용 의향을 보였다. 특히, 성별이나 독서 생활습관 모두에

서 전체 생산주체별 추천도서목록 중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다. 이는 생산주체별 추천도서 목록 중 대학입시에 활용된 추천도서목록에 대한 이용 의향이 가장 높음을 의미한다.



<표 14> 입시에 활용된 추천도서목록 이용 의향 차이 분석

		평균	표준편차	F 통계량	P
학년	1학년	4.21	.926	0.774	0.380
	2학년	4.11	.994		
성별	여학생	4.32	0.84	10.872	0.001***
	남학생	3.97	1.06		
독서동기	숙제와 학생부 기록을 위해	4.22	0.88	0.735	0.392
	독서가 하고 싶어서	4.12	1.03		
독서 생활습관	독서를 매우 즐겨 시간이 날 때마다 독서를 한다.	4.00	1.15	4.533	0.004***
	독서를 즐기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하지 않는다.	4.34	0.92		
	시간이 나면 다른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독서를 하지 않는다.	4.09	0.86		
	시간이 나도 독서를 잘 하지 않는다.	3.82	0.97		
독서능력 자기인식	독서를 어려움 없이 매우 잘한다.	4.33	1.00	1.786	0.150
	독서를 어려움 없이 대체로 잘하는 편이다.	4.17	0.94		
	독서가 잘 안되어 대체로 어렵게 느껴지는 편이다.	4.00	0.85		
	독서가 잘 안되어 매우 어렵다.	3.63	1.19		

Note: \*\*\*: 1%, \*\*: 5%, \*: 10% 수준에서 유의

## 5. 토론 및 결론

본 연구는 본 연구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추천도서목록 이용과 인식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추천도서목록의 생산과 교육을 하는 주체의 관점이 아닌 수요자인 고등학생들의 추천도서목록에 대한 인식을 연구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서울 시내 7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참여한 311명 학생들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고등학생들의 추천도서목록과 독서생활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진행하였고, 고등학생들의 추천도서목록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항로지분분석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독서동기, 독서 생활습관, 독서 능력에 대한 자기 인식에 따른 추천도서목록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이용 의향 차이

를 파악하고자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의 요약은 아래와 같다.

첫째, 독서 동기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숙제나 학생부를 위해 독서 하는 학생들(53.4%)이 자발적으로 독서를 하는 학생들(46.6%) 보다 많았다. 최근 2주간 독서를 했다는 학생들은 전체 응답자 중 92.3%로서 하지 않았다는 학생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86.2%의 학생들이 소설 및 문학작품을 읽었다고 응답해 학생들의 소설과 문학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 61.8%의 학생들이 대체로 독서를 즐긴다고 답하여 시간이 나도 독서하지 않는 38.3%의 학생들보다 많았다. 응답자 중 88.1%의 학생들이 독서를 어려움 없이 대체로 또는 잘한다고 응답하여 많은 학생들이 독서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학생들이 읽을 책을 고르기 위해 주로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자유롭게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법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건수가 전체의 31.8%로 가장 많았고 베스트셀러, 추천도서목록을 이용하여 선택한다는 답이 각각 17.2%와 16%로 뒤를 이었다.

셋째, 고등학교 재학하면서 추천도서목록의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전체의 53.7%였으며 이들은 목록에 좋은 책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믿음(47.3%)과 책을 빨리 고를 수 있기 때문에(31.1%) 추천도서목록을 이용한다고 하였다. 추천도서목록을 이용하지 않은 학생들은 스스로 책을 고를 수 있어서 추천도서목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거나(47.9%) 추천도서목록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27.8%) 이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넷째, 학생들은 추천도서목록에 좋은 책이 포함되어 있다는 믿음이 가장 높았다. 자신에게 맞는 책 또는 재미있는 책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나타났다.

다섯째, 전체 응답자 중 62.4%의 학생들은 향후 추천도서목록을 이용하겠다는 의향을 보였다. 학생들이 가장 강하게 이용할 의향을 보인 추천도서목록은 입시에 활용되었던 추천도서목록이었다. 그 뒤를 이어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제작한 추천도서목록을 이용할 긍정적 의향을 보였으며 학부모 제작 추천도서목록은 가장 이용 의향이 낮았다.

여섯째, 추천도서목록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항로지모형을 구성하여 분석한 결과, 성별, 학년, 그리고 추천도서목록에 내게 맞는 책포함 여부와 재미있는 책 포함 여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추천도서목록이 내게 맞는 책과 재미있는 책을 포함한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추천도서목록을 이용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추천도서목록이 내게 맞는 책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는 학생들의 인식이 리커트 척도 기준으로 1점 단위 더 긍정적일수록 2.305배 추천도서목록을 이용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추천도서목록의 개별 적합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추천도서목록 이용에 매우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일곱째, 생산주체별 추천도서목록 이용 의향이 학생들의 학년, 성별, 독서동기, 독서 생활습관, 독서능력에 대한 자기인식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실시한 일원분산분석 결과, 사서교사 제작 추천도서목록 이용 의향은 성별과 독서 생활습관, 독서능력에 대한 자기인식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독서를 즐기지 않는 학생들보다 독서를 즐기는 학생들이, 독서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보다 독서를 어려움 없이 잘하는 학생들이 사서교사가 제작한 추천도서목록 이용 의향이 있다는 것이 밝혀져 흥미롭다.

여덟째, 교과교사 제작 추천도서목록 이용 의향은 성별, 독서 생활습관, 독서능력에 대한 자기 인식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서교사 제작 추천도서목록과 마찬가지로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이, 독서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보다 어려움 없이 독서를 잘하는 학생들이, 독서를 즐기지 않는 학생들 보다는 독서를 즐기는 학생들이 교과교사 제작 추천도서목록을 이용할 의향이 높았다.

아홉째, 동료학생 제작 추천도서목록 이용 의향은 독서 생활습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독서를 매우 즐기며 시간 날 때마다 독서를 하는 학생들의 이용 의향이 가장 낮았으며 심지어는 독서를 하지 않는다고 답한 학생들보다도 이용 의향이 낮다는 분석 결과를 보였다.

열 번째, 학부모 제작 추천도서목록 이용 의향은 역시 동료학생 제작 추천도서목록과 마찬가지로 독서 생활습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독서생활습관에 대한 평균 결과값 자체가 다른 추천도서목록 이용 의향에 비해 매우 낮아 '보통 이하'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열한 번째, 독서교육 단체 및 기관 제작 추천도서목록 이용 의향은 성별, 독서동기, 그리고 독서 생활습관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구체적으로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독서를 하지 않는 학생들보다는 독서를 즐기는 학생들이 높은 이용 의향을 보였다. 또한, 숙제 등을 위해 독서를 해야 해서 독서 하는 학생들보다는 순수하게 독서가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이용 의향이 높았다.

열두 번째, 입시에 활용된 추천도서목록 이용 의향은 성별, 독서 생활습관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역시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이, 독서를 하지 않는 학생들보다는 즐기는 학생들이 높은 이용 의향을 보였다. 특히, 입시에 활용되었던 추천도서목록은 전 유형의 추천도서목록 중 가장 높은 이용 의향을 보였다.

도출된 연구 결과 가운데 후속 연구자들이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 추천도서목록이 내게 맞는 책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수록 추천도서목록을 이용할 것이라는 이항로짓모형 분석의 결과이다. 빈도분석 결과를 통해 추천도서가 좋은 책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는 학생들의 믿음이 가장 크다고 확인이 되었으나 정작 학생들의 추천도서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추천도서의 개별 적합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라는 점은 중요한 시사점이다. 추천도서들의 학생 개별 적합성이 추천도서목록의 활용을 위해 중요하다고 여기는 학생들의 시각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추천도서라는 용어가 수요자를 대상으로 도서 선정 주체에 의해서 평가된 "적합한 도서"(변우열, 2015, 322)라고 정의되는 것이 적절하다. 적합성(Pertinence)은 문헌정보학에서 오랫동안 다루어온 본질적 이슈인 만큼 그동안 쌓아온 연구들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내게 맞는' 책에 대한 개념적 틀과 관련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두 번째, 본 연구 결과는 지속적으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추천도서목록 이용에 관심이 덜하다고 나타났다. 이항로짓모형 분석 결과를 보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추천도서목록 이용을 덜할 것이라는 결과를 나타냈고 일원 분산분석 결과 역시 사서교사, 교과교사, 독서교육 단체 및 기관이 각각 제작한 목록, 입시에 활용된 목록의 이용 의향이 여학생들보다 모두 낮았다. 남학생들을 위한 독서 지원에 진지한 관심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세 번째, 사서교사와 교과교사 제작 추천도서목록이 독서를 잘 하지 않거나 즐기지 않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서교사들의 인식과는 다르게, 독서를 즐기거나 독서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잘하는 학생들이 사서교사와 교

과교사 제작 추천도서목록을 이용하겠다는 긍정적인 의향을 보였다. 이것은 독서를 잘하고 즐기는 학생들이 오히려 추천도서목록에도 더욱 관심을 적극적으로 보이고 독서를 하지 않거나 어렵게 여기는 학생들은 추천도서목록에도 관심이 덜하다고 해석 가능하다. 고등학생들의 추천도서목록 이용은 그들의 학업 성취 동기와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이 가능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동시에 독서를 하지 않거나 어렵게 여기는 학생들이 추천도서목록 이용에 긍정적일 수 있도록 독서 지원 방식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생들은 대학입시에 활용된 추천도서목록에 대한 매우 높은 이용 의향을 보였다. 고등학교에서의 독서는 아무래도 교육과정과 연계되고 대학입시라는 목표를 위

해 목표지향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학생들도 진학을 위한 독서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다. 심지어 독서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들조차 입시에 활용된 추천도서목록에 보통 이상의 비교적 높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은 고등학생들에게 대학입시가 얼마나 중요한 이벤트인가를 나타낸다.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들을 위한 독서교육과 추천도서목록 제작 전반에 관한 진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가 연구자와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추천도서목록을 포함한 다양한 도서 정보를 활용한 독서교육의 비계(scaffold)를 고민할 기회를 제공하여 고등학생 대상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강창래 (2012). 권장도서목록을 다시 생각하다. 2012 파주 북소리 '도서관의 날' 전문인 세미나 자료집, 4-16.

김근호 (2011). 청소년 권장 도서선정의 비판적 검토. *독서연구*, 26, 265-302.

김미정, 이병기, 임정훈 (2020). AHP를 이용한 사서교사의 북큐레이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3), 303-324.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 국민독서실태조사. 출처: <http://www.mcst.go.kr>

박시윤, 노동조 (2018). 교과별 수행평가 도서목록에 대한 중고교생들의 인식 및 관심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3), 229-244.

박양하 (2016). 학교도서관 북큐레이션 서비스를 위한 도서추천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1), 279-303.

소병문 (2019). 권장도서목록을 활용한 자기 선택적 독서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독서 동기 유형에 끼친 영향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1), 177-198.

- 안인자 (2009). 국내 어린이 권장도서목록 개발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4), 31-49.
- 윤유라, 이은주 (2020). 권장도서목록을 활용한 독서토론활동의 설계.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3), 325-350.
- 이연옥 (2006). 아동 및 청소년 도서선정 도구 평가에 관한 연구: 권장도서목록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2), 47-72.
- 이윤석 (2021). 청소년 추천도서의 서지적 특성. 사회과학연구, 14(2), 141-164.
- Hosmer, D. W. & Lemeshow, S. (2000). Applied Logistic Regression. New York: Wiley.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hn, In-Ja (2009). A study on the trends of developing children's suggested reading list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4), 31-49.
- Kang, Chang-Rae (2012). Recommended books revisited. 2012 Pajo booksori 'Library day' Seminar, 4-16.
- Kim, Keun-Ho (2011). A critical study on selecting the recommended books for adolescents. Journal of Reading Research, 26, 265-302.
- Kim, Mi-Jung, Lee, Byoung-Kee, & Lim, Jeong-Hoon (2020). Analysis of priorities for the provision of book curation service by teacher librarian using AHP.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3), 303-324.
- Lee, Yeon-Ok (2006).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the selection tools for children's and young adults' book: through the recommended book lis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7(2), 47-72.
- Lee, Yoon-Seok (2021). Bibli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commended books for young adults. Social Science Research, 14(2), 141-164.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1). 2021 National Reading Survey. Available: <http://www.mcst.go.kr>
- Park, Si-Yun & Noh, Dong-Jo (2018). A study on the awareness and interest level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book list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9(3), 229-244.
- Park, Yang-Ha (2016). A study on the book recommendation standards of book-curation service for school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1), 279-303.

- So, Byoung-Moon (2019). An analysis on impact of the self-selected reading program using recommended book lists to high school students' reading motiv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1), 177-198.
- Youn, You-Ra & Lee, Eun-Joo (2020). Design of reading and discussion activities using recommended book list: the case of D universi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3), 325-350.